



[라이프]

식품관부터 명품관까지
백화점은 '뉴트로' 열풍

L1

메트로 트래블

도체스나-자테츠 맥주&홉 축제는 체코에서도 긴 전통을 가진 맥주와 홉 축제다. 도체스나는 자테츠의 역사적인 중심지에서 열리는 기후에 관련된 전통적인 축제다. 축제는 휴일이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열리며 관광객들은 54종류가 넘는 맥주 시음과 더불어 음악, 게임, 즐거움 등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맥주의 레이블 바꿔보기, 밤리볼 토너먼트, 맥주 컵으로 긴 뱀 만들기 등의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함께 열린다.

자테츠시는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1시간여 떨어진 전통적이고 고즈넉한 평야 속에 홉을 키우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정, 판매까지 하는 홉이 특화된 도시다.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자테츠에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맥주를 즐겨마신다고 한다. 이 '도체스나 맥주축제'는 매년 9월 초순 홉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다. 지난 6일 방문한 이번 축제는 62회 축제로 올해는 9월 6일부터 7일 까지 단일 티켓만 진행된다. 자테츠시에서는 매년 4월 초 또 다른 홉 축제가 있다.

자테츠에서 생산되는 홉은 일본·러시아·독일 등 전세계 70개국에 수출되어 프리미엄 라거의 원재료로 사용될 만큼 재료 품질이 훌륭하다. 홉은 날씨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체코 자테츠시 근방 날씨가 홉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라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맘 때 도체스나 축제에 방문하면 약 4만명의 사람들과 함께 맥주축제와 음악밴드 공연 등 즐길 수 있다. 축제 발표를 마친 자테츠시 즈데나 하모우바 시장은 "체코의 유명 밴드 세バス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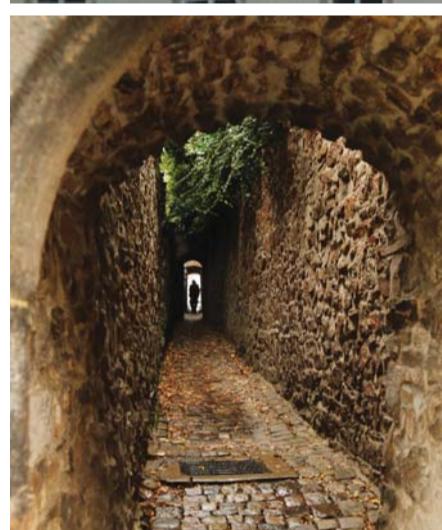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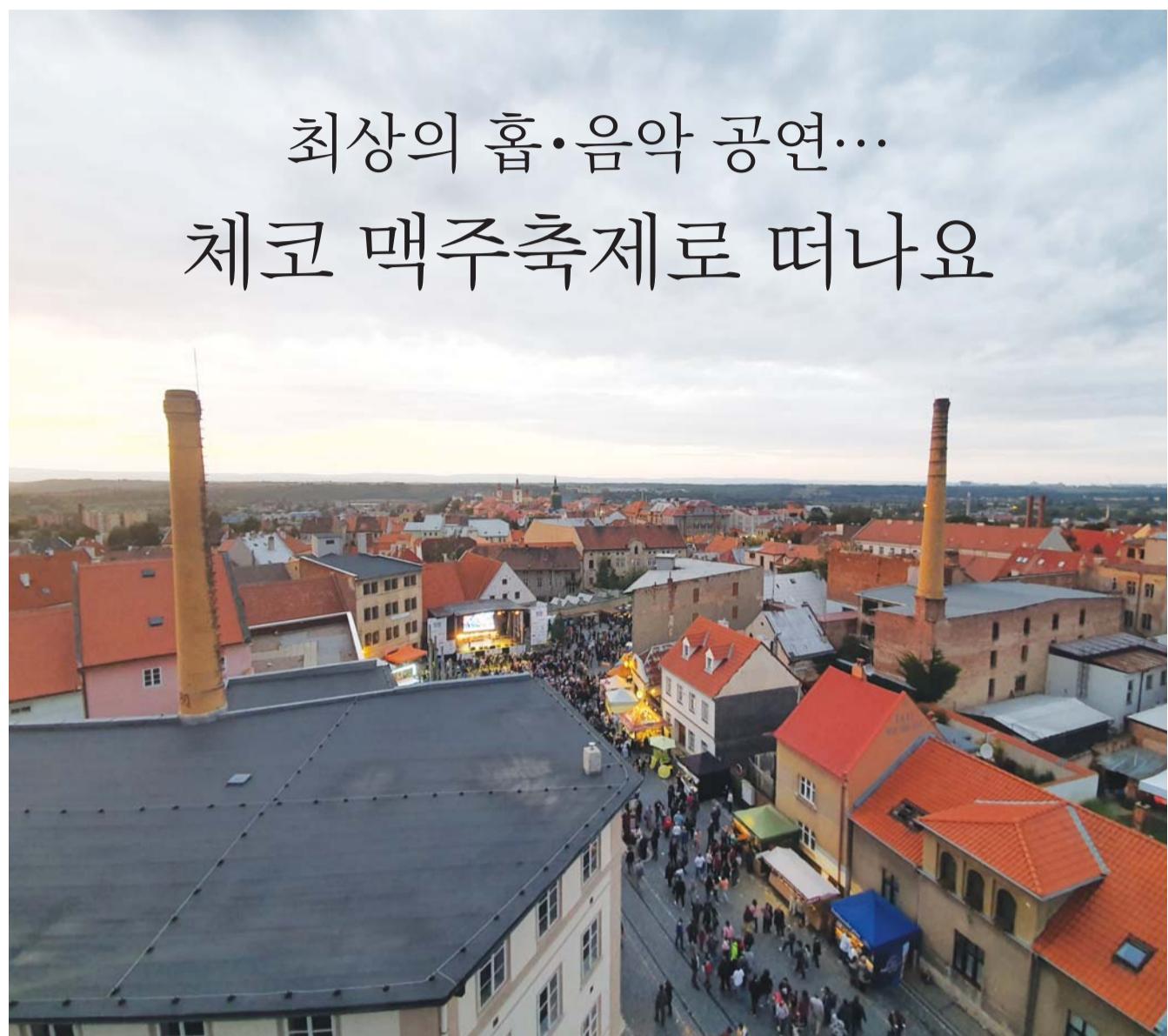


[호텔]

유리피안 감성 가든파티
秋남秋녀 마음 설렌다

L4

최상의 홉·음악 공연... 체코 맥주축제로 떠나요



① 자테츠 맥주 & 홉 축제 전경. ② 체코에서 제일 좁은 도로인 카단 카또바 울리초카.
③ 관광객들이 맥주축제를 즐기고 있다.
④ 카단에서 예술가들이 드럼연주를 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안 등이 참여하는 축제로 맥주와 길거리 음식을 먹다가 멈춰서 노래를 따라부르고 즐기는 것이 이 축제의 큰 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축제엔 폴란드, 독일, 벨기에 등 국제적인 방문객들이 많아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20여개 기업 및 국가에서 홉 맥주 후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고 있는데, 특히 이번엔 최근 체코내 공장을 오픈한 한국 네센타이어가 후원사로 들어와 더 국제적인 행사가 되는 것 같다"고 기쁜 맘을 밝혔다.

자테츠의 홉(사즈)은 체코에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는 2007년 5월 8일 '자테츠 헤벨'

원산지 보호 명칭 및 지리 명칭 지정 목록에 등록했다. 이는 특정 농산물이나 식료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규제로 체코 농업·식품 업계의 최초로

지정된 명칭 중 하나다.

사즈는 섬세하고 균형 잡힌 맛을 제공한다. 사즈 홉이 세계적인 맛을 주는 프리미엄 홉이 된 이유 중에는 자테츠의 기후도 큰 영향을 미친다. 평년 기온이 8~9°C (홉이 자라는 6개월 동안은 14~16°C)고, 평균 연간 강수량은 450mm (홉이 자라는 기간 동안은 평균 강수량이 약 260mm)로 쇠상급 홉으로 자라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테츠에서 동쪽으로 3시간여 자동차로 이동하면 왕실의 도시 카단에 도착한다. 체코에서 제일 좁은 도로인 카또바 울리초카는 폭 66.1cm, 길이 51m로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다. 바로 사형집행인만 광장과 거쳐를 왕복한 지나간 길이다.

취재협조: 체코관광청·카타르항공

/체코=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VM 2020' 캠페인, 韓관광객 70만명 유치 목표

<2020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캠페인 론칭 기념 기자회견
생태관광·예술·문화에 초점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가 '2020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Visit Malaysia 2020)' 캠페인 론칭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5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2020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로 공개와 다투 모하메드 아쉬릴 빈 무다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하이리 모하드 야크잔 말레이시아 관광청 국제부 홍보국 부국장, 그리고 사이드 무하질 자말루릴 말레이시아 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이 참석하여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

'VM 2020'은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5회차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0년 첫 방문의 해 론칭부터 관광 산업을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4번에 걸친 방문



(왼쪽부터) 사이드 무하질 자말루릴 한국사무소 소장, 다투 모하메드 아쉬릴 빈 무다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하이리 모하드 야크잔 말레이시아 관광청 국제 홍보 부국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의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VM 2020' 캠페인은 생태관광, 예술 및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관광 산업 발전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관광 산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직접 수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의 지향점을 반영하고 있기도 한다.

이는 'VM 2020' 캠페인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채택한 지속 가능한

한 개발 목표(SDGs)가 내세우는 가치와 일맥상통하기도 하다.

캠페인으로 수상작은 말레이시아에서 서식 중인 멸종 위기 조류 코뿔새, 말레이시아 국화 히비스커스, 야생고사리, 말레이시아 국기의 상징색 등 말레이시아의 특색을 나타내는 다양한 아이콘으로 구성됐다.

향후 말레이시아 항공, 에어아시아, 파이어플라이 및 말린도에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유수 항공사들은 말레이시아 관광청과의 협력 하에 자사의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드쇼, 디지털 마케팅, 팜투어 등 전세계에 말레이시아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사이드 무하질 자말루릴 말레이시아 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은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2020년 한국인 관광객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한국 여행 업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비엣젯항공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참가

여행정보·무료항공권 이벤트도

베트남 차세대 항공사 비엣젯항공이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모두투어 여행박람회'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비엣젯항공은 이번 여행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오픈해 자사의 프로모션 홍보는 물론 게임과 가상현실(VR) 체험 등의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부스 내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어 본인의 SNS에 올린 관광객들에게 즉석 추첨을 통해 무료항공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특히 8일에는 비엣젯 마스코트의 K팝 댄스 등 깜짝 퍼포먼스 공연도 펼쳐졌다.

비엣젯항공의 응웬 탄 선 부회장은 "가장 큰 여행박람회 중 하나인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베트남 여행 정보는 물론 무료항공권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됐다"며 "특히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열려 예년보다 더욱 많은 참가자들이 방문했다"고 밝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참여한 비엣젯항공 홍보부스
/비엣젯항공

혔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인 여행객들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모두투어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즐거운 여행'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비엣젯항공은 2015년부터 연속으로 참가해 베트남 여행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중이다.

한편 이번 모두투어 여행박람회는 '세상의 모든 여행'이라는 슬로건 하에 역대 최대 57개국 42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전 세계 문화, 예술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는 여행 축제가 됐다는 평이다.

/이민희 기자